

# 만남

2024년 03월  
통권 229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       |    |
|----------------------------|-------|----|
| 신앙 나눔                      | ----- | 3  |
|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로 엮은<br>십자가의 길 | ----- | 4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 | 17 |
| 전례 토크                      | ----- | 20 |
|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                | ----- | 24 |
| 축일을 축하합니다                  | ----- | 26 |
|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 | 27 |
| 공동체 소식                     | ----- | 28 |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29 |
| 월중 행사표                     | ----- | 30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br>월보 만남지 안내  | ----- | 31 |
| 미사안내                       | ----- | 32 |

##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 새로운 순교자들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선교 열정으로 온 교회를 불타오르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 양심의 소리 (최영숙 데레사)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로 죄와 벌이 생겨났고  
사람의 겹쳐진 마음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자신의 행위에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선악을 도덕률로 가리는 인간고유의 품성이 있네!

사람의 머리엔 이성을 마음엔 자유의지를 주시어  
선악을 양심의 가책으로 분별해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소리는 심장을 두드리는 곧 하늘의 소리요  
하느님의 계시로 악령을 태우는 신성한 불꽃같네!

마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올곧은 양심의 소리에는 늘 선을 추구하게 되고  
달콤한 말에 유혹되어 끌리는 속임수에 빠져드는  
비뚤어진 양심의 소리는 늘 악을 갈구하게 되네!

머릿속에 새겨진 이성은 자신을 비추는 등불이고  
가슴속에 숨겨진 양심은 주님께 바치는 고백이니  
지성과 자유의 길잡이가 올바른 삶을 선택하기에  
양심의 소리만 따르면 영원한 생명의 길 걷겠네!

카롯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 값으로 밭을 사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듯이  
하느님은 양심의 소리대로 사랑하며 살라하시네!



##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로 엮은 십자가의 길

주도자(†)가 읽는 부분은 2023 년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해설자(●)가 읽는 부분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권고 「사랑하는 아마존」,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찰을 묶은 「우리 어머니인 지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시작기도

† (제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그분을 찬미하여라.”<sup>1</sup>

오늘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를 엮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 지니셨던 감수성’<sup>2</sup>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기후위기 속 가난한 이들과 생태계의 울부짖음을 들으려 합니다.

이 기도 안에서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sup>3</sup>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sup>1</sup> 교황 프란치스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이하 LD)」, CBCK, 2023, 1 항.

<sup>2</sup> 위의 책, 1 항.

<sup>3</sup>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이하 LS)」, CBCK, 2015, 1 항.

## 제1 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너져 가고

어쩌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의 충격이 많은 사람과 가족의 삶에

점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LD 2)

- 오염, 기후 변화, 사막화, 환경 이민, 지구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해양의 산성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불평등과 떨어질 수 없는 측면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는, (...)

이른바 잘사는 사회, 지나친 군비 지출, 버리는 문화,

변두리의 소외 계층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흡한 세계관,

어린이와 미성년자와 힘없는 노인들, 태아에 대한 보호 부족 등이 있습니다.<sup>4</sup>

† 영광송

## 제2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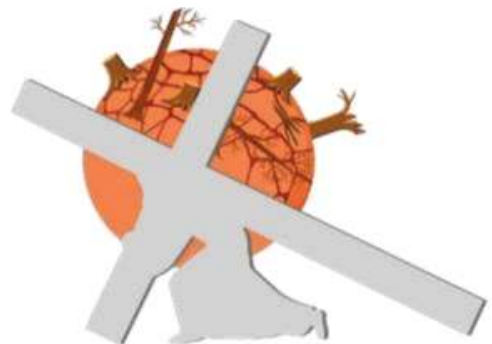
<sup>4</sup>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97 쪽.

† 아무리 부정하고 숨기며 위장하거나 상대화하려고 하여도,  
기후 변화의 표징들은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구 온도가 섭씨 0.5 도 오를 때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이,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혹설이 발생할  
강도와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D 5)  
이는 많은 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칩니다. (LD 15)

-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이 이주하게 되면  
가난한 이들 또한 생계에 타격을 받아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안타깝게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sup>5</sup>



† 영광송

**제 3 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sup>5</sup>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CBCK, 2015, 25 항.

† 기온 상승은 지구 표면뿐 아니라 수 킬로미터 높이의 대기권에서도,  
 해수면을 비롯하여 수백 미터 깊이의 바닷속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바다의 산성화를 증가시키고 산소 농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빙하가 줄어들고 적설량이 감소하며 해수면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LD 12)



● 저는 수년 전에 한 할머니가 하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남용도  
 늘 용서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늘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몇 번 용서하지만,  
 지구는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구가 파괴로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누이인 지구, 어머니인 지구를 보호합시다.<sup>6</sup>

† 영광송

#### 제 4 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예수님을 돌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모성애로 함께 아파하며 돌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꿰찔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과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sup>7</sup>

<sup>6</sup>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42 쪽.

<sup>7</sup>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CBCK, 2015, 241 항.



- 우리 모두가 작은 생태적 피해를 일으킬 때,  
우리는 크든 작든 피조물의 변형과 파괴에 일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sup>8</sup>

## † 성모송

**제 5 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우리를 환대하는 세상과 화해하는 여정에  
모든 이가 동반자가 되도록,  
그리고 저마다의 기여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위대한 가치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LD 69)

- 연대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서로 다름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형제애의 마음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하며  
공동선을 함께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자세입니다.<sup>9</sup>

## † 영광송



<sup>8</sup>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51 쪽.

<sup>9</sup> 위의 책, 40 쪽.



## 제 6 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나뭇잎, 길, 이슬,

가난한 이의 얼굴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LD 65)

- 참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

자연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는

고통받는 인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사명을 간과하는 사회는

자연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참된 피조물을 악용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환경에 대한 염려에는,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여러 인간 문제에 대한 염려도

함축되어 있습니다.<sup>10</sup>

† 영광송

## 제 7 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sup>10</sup>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서문.

† 인공지능과 최신 기술 발전은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는 발상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발상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기술의 도움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괴물처럼 자기 자신을 먹어

양식으로 삼습니다. (LD 21)

- 현실에서 아직도 화석 연료가 세계 전체 에너지의 8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화석 연료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LD 50)

모든 미래의 문제가

새로운 기술적인 개입으로 해결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치명적인 실용주의입니다. (LD 57)



† 영광송

**제 8 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코로나 19 는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의 두 가지 확신을 성가실 정도로 강조하며

반복하고자 합니다.

곧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LD 19)

- 우리는 피조물의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착취할 때,

하느님 사랑의 표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하느님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sup>11</sup>

† 영광송

제 9 처 예수님께서 세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하느님께서는 ...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LD 68)

- 해마다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매우 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졌습니다.

---

<sup>11</sup>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35-36 쪽.

우리 때문에 수많은 생물종들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sup>12</sup>

† 영광송

제 10 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 특히 더 가난한 이들을  
더 악화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LD 53)

- 사람들이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덜 탐욕적이고 더 평온하며, 덜 걱정하고 더 존중하며,  
더 형제적인 또 다른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독려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sup>13</sup>

† 영광송

---

<sup>12</sup>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21 쪽; 「찬미받으소서」, CBCK, 2015, 33 항

<sup>13</sup>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하는 아마존」, CBCK, 2020, 58 항.

## 제11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저는 권력자들에게 감히 반복하여 묻습니다.

“시급하고 필요한 때에 조치를 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으로 기억될 권력을  
오늘 무엇 때문에 지키려 합니까?” (LD 60)

● 불의 앞에서 모세가 분노하였듯이,

예수님께서 노여워하셨듯이,

하느님께서 노여워하셨듯이,

우리도 분노해야 합니다.

악에 익숙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에 파괴와 심지어 죽음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특히 농부와 원주민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착취 앞에서

우리의 사회적 양심이 무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sup>14</sup>

† 영광송

## 제12 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sup>14</sup>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하는 아마존」, CBCK, 2020, 15 항.

† “네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카인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하느님께서서는 추궁하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창세 4, 9-11” (LS 70)

●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요한 19,28)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

우리 시대의 목마른 모든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sup>15</sup>

국제 연합에서 밝힌 그 자료, 그 수치(數値)를 잊지 맙시다.

날마다 천 명의 아이들이 - 날마다! -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 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sup>16</sup>

† 주님의 기도

**제 13 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각자의 양심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끼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녀들 앞에서  
의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 지상을 지나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나의 노동과 노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LD 33)

<sup>15</sup>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71-72 쪽.

<sup>16</sup> 위의 책, 65 쪽.

- 지구는 모든 이를 위한 어머니입니다.

지구가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나 그보다 더 나쁜 오만한 주인 행세가 아니라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관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sup>17</sup>

† 영광송

**제 14 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최악의 위험이 됩니다. (cf. LD 73)

- 이제 스스로 존재하고 전능하며 한계가 없는 인간 존재의 개념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우리를 더 겸손하고 더 풍요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합시다. (LD 68)

† 영광송



<sup>17</sup>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16 쪽.



† 지구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창조주께서 손수 빚으신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애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는 인류 가족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그만둘 것입니다.<sup>18</sup>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sup>19</sup>

† 주모경

기도 역음: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JPIC

일러스트: 김삼화 아눈시앗다 수녀

---

<sup>18</sup>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어머니인 지구」, CBCK, 2020, 77 쪽.

<sup>19</sup>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CBCK, 2015,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일부.

## 진리를 실천하는 이 (요한 3, 14-21)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23장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통해 진리를 증언한 경험이 있습니까?
- 믿는다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지배’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구원’에다가 다른 말을 가져다 넣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개인소득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신은 무능력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분노하고 하느님께 원망합니다. ‘지배’는 우리 일상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이웃이나 가족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지배하려 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부와 권력은 세상에 봉사하는 것으로 쓰일 때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으로 쓰일 때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부와 권력이 악을 저지르는데 쓰이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는데 쓰여서 이 사순시기를 통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구원으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23장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 [사순특집] 성삼일 의미와 전례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로부터 시작돼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기도까지 이어지는 성삼일(聖三日)은 성주간과 부활 시기 안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구원 역사의 최고 절정이고 완성인 주님의 파스카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경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삼일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특별한 예식으로 기념한다. 성삼일의 전례와 의미들을 살펴본다.

### ■ 성삼일 의미

나기정 신부(대구 대안본당 주임)는 「성지주일·성삼일-예절준비와 해설」(가톨릭신문사)에서 “성삼일은 사순 시기의 마지막 절정과 주님 부활 대축일이 연결돼 있는 지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기간은 인간 구원을 위한 구원의 정점으로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고 밝힌다. 부활 대축일이 교회 생활 절기의 절정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크고 깊으신 사랑을 드러내 주는 결정판이라고 할 때, ‘성삼일은 여기에 가장 근접한 준비 기간이자 파스카 신비가 집약된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1969)은 “인류 구원과 하느님의 완전한 현양 사업을 그리스도께서 주로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완성하셨으니, 곧 당신께서 돌아가시어 우리의 죽음을 소멸하시고 당신께서 부활하시어 생명을 되찾아 주셨으니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삼일은 전례주년의 정점으로 빛난다”고 그 중요성을 밝힌다.

### ■ 성삼일 전례

#### + 주님 만찬 성목요일

성목요일 저녁에 거행되는 ‘주님 만찬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미사 주제는 주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가 지니는 모든 의미 곧 주님의 새로운 파스카, 십자가의 제사, 일치와 사랑과 나눔의 식사, 새 계약, 주님의 현존 등이 최고로 표현돼야 한다.

발씻김 예식은 최후의 만찬 때 겹손과 봉사, 애덕을 가르치시고자 제자들 발을 씻기신 일에서 비롯된다. 신앙인들에게는 그 모습을 본받아 사랑의 계명을 되새기고 실천하라는 뜻으로 전해진다.

미사에서 사제는 백색 제의를 입는다. 또 제대는 성목요일 특성에 맞게 소박하게 장식된다. 특별한 점은 이날 대영광송 때 성당 종과 제대 종을 치고, 이후 파스카 성야 미사의 대영광송 전까지 타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나무로 만든 딱따기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때에 교회의 슬픔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오르간과 악기 연주는 성가를 돕는 반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윤종식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는 “성삼일 기간 동안 타종과 오르간 연주를 하지 않는 것은 수난 시기에 십자가와 성상들을 보자기로 가리고 ‘눈의 재(齋)’를 지키는 것으로 여겼듯, 일종의 ‘귀의 재(齋)’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 데서 나왔다”고 풀이했다.

미사 후에는 ‘수난 감실’에 성체를 모셔가는 행렬이 시작된다. 성금요일까지 밤샘을 하며 드리는 성체조배는 예수께서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마르 14,37)고 하신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이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이 절정에 달하는, 1년 중 가장 비장한 날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미사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날이다. 오랜 관습에 따라 고해성사와 병자 도유를 제외하고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는다. 주님 수난 예식만 거행되며 단식과 금육이 실천된다.

예식은 ‘요한의 수난 복음’(18-19장)을 입체낭독하는 말씀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이어진다. 십자가 경배는 ‘거룩한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과 ‘거룩한 십자가 경배’로 구성된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에서 십자가는 보라색 천으로 덮인다. 특히 이날 제대는 십자가·촛대·제대포 없이 완전히 벗겨둔다. 사제들은 검은색 제의 대신 순교자들의 색인 붉은색 제의를 입는다.

「성지주일·성삼일-예절준비와 해설」에 따르면 4세기 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금요일에 십자가 조각을 현시해 경배했고, 7세기 로마에서는 ‘예루살렘십자가성당’으로 행렬하고 주님 말씀을 들은 다음 십자가 경배를 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십자가 경배의 중심 예식으로 자리잡았다는 것.

교회는 이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한다. 그 수난과 죽음은 부활의 영광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뜻에서 ‘복된 수난’이라는 전례적 표현도 쓰인다.

#### + 성토요일·파스카 성야

이날 교회는 주님의 무덤 옆에 함께하면서 수난과 죽음, 또 저승에 가심을 묵상한다. 깊은 침묵과 적막이 흐르는 가운데 부활의 실현을 바라고 기다린다. 제대는 벗겨진 상태이며 미사도 드리지 않는다. 고해성사와 병자도유를 제외하고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고 ‘노자성체’만 모실 수 있다.

성토요일 밤인 파스카 성야는 ‘모든 성야(전야제)의 어머니(Mater omnium sanctarum vigiliarum)’로 모든 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밤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새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새우게 되었다”(탈출 12,42)는 말씀처럼 하느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밤이다. 또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루카 12,35-37 참조) 것처럼 깨어있는 밤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는 루카 복음의 권유처럼 부활 성야를 깨어 기념했다고 한다. 이후 서방교회에서 10세기에는 전례 거행이 오후로, 14세기에는 오전으로 옮겨지며 부활 첫 미사가 아침에 봉헌되기도 했다. 비오 12세 교황이 1955년 성주간 전례를 개정하면서 파스카 성야가 밤으로 복원돼 그 의미를 되찾게 됐다.

파스카 성야에 사제는 백색 제의(祭衣)를 입는다.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한국천주교주교회의)은 “성야 예식은 모든 장엄한 예식 가운데 가장



드높고 존귀하다.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이 예식을 거행한다”고 밝힌다.

전례는 크게 ‘빛의 예식’ ‘말씀 전례’ ‘세례 전례’ ‘성찬 전례’로 구성된다. 사제는 빛의 예식에서 새 불을 축성하고, 파스카 초에 ‘A’(알파)와 ‘Ω’(오메가), 그 해의 연수를 표시하고 불을 켜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의미다.

이어서 공동체는 말씀 전례를 통해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 역사를 듣고 마음에 새긴다. 아울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날을 맞이하며 교회 새 지체들이 새로 태어나는 세례식 혹은 세례 때 약속을 새롭게 하는 세례 서약 갱신식을 가진다. 이러한 새로 태어남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찬 전례로 완성된다.



## ♥ 제105회 3.1절을 맞이하면서 (김진호 프란치스코)

3월이 오면 생동하는 새 생명과 함께 새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 2024년 오늘 3월의 첫날은 105회를 맞이하는 3.1절 기념일이다. 지난 1919년 3월1일, 그날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 온다. 나라를 지켜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나고 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켜준 3.1 운동가들의 연령들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919년 우리나라 국민 1600만 명 중 80%가 문맹이었음에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뜨거운 애국심에 남녀노소는 물론 어린애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몰려나오는 국민의 터지는 물결을 이루며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민족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일제의 무서운 총칼의 핏박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1542차례의 만세운동으로 7509명의 사망자와 15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에 세계를 놀라게 했던 만세운동은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비폭력저항 국민운동이었다. 3.1절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이는 바로 16세의 소녀, 영원히 잊지 못할 유관순 열사가 있다. 어린 소녀 유관순 열사는 1902년12월16일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1920년9월28일 일제강점기의 무서운 시대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 모진 고문 끝에 코와 귀가 잘리고 팔다리가 토막, 토막 잘리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만세를 부르며 나라를 위해 결국 목숨을 바치었다. 그 외에도 안중근 의사, 손병희 생, 윤봉길 의사, 이경제 선생 외에도 3.1 운동가 4858명의 신상 카드는 우리나라 문화제로 등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자유평화인권운동가이셨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데 있다. 과거는 닫는 것이고 미래는 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동시에 생각나는 것은 독립 운동가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도 역사에 한몫을 이루어 낸 훌륭한 주인공으로 살아왔기에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자랑하고 싶다.

우리가 성장해 오던 1950년 우리나라 국민 소득 76불 평균수명 48세 세계에서 인도 다음 2번째로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시절, 세계에서 가장 넘기가 힘들다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어려운 시절 전깃불 대신 석유 등잔불을 사용했고, 지금의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풍덩 뒷간을 사용했고, 목욕탕이 없어 가마솥에 물을 끓여 대야에 담아 목욕을 해야 하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세탁기가 없어 옷을 손으로 빨아야 했기 때문에 속옷 틈 사이에는 이 들이 서식했다. 구두나 운동화 대신 검정 고무신을 신어야 했고, 자동차 대신 지계를 사용했으며 자동차를 가진다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에 성장하고 살아왔다. 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책가방 대신 교과서와 공책과 필통을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여학생들은 허리에 남학생들은 어깨에 둘러메고 학교에 다녀야 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내가 학교에 다니고 성장하던 가난했던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과 비교해 보면 꼭 꿈을 꾸고 있는 것같이 느끼게 한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하나뿐인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64년 9월부터 73년 3월까지 32만 명이 월남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 중에 사망자 5099명과 11232명의 부상자들은 오늘까지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모래바람으로 한치 앞을 가늠할 수도 없고 40도가 넘는 고통스러운 공사판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35만 명의 노동자들의 공로와 함께 1963년 12월 22일부터 파독광부 8천명과 파독간호사 12000명의 공로에도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족과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파독간호사들과 광부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영원히,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 국민 5180만 평균수명 83.7세 국민소득 33882불로 세계 유엔에 등록된 193개 국가 중에 13번째로 잘사는 나라로 성장했다. 지난 60년 동안 세계 경제는 6.6배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362배의 급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1운동의 정신이 아직도 대한의 아들딸들 마음속 깊이 살아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하느님의 사랑이 길이길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3일  | 가밀라   | 허(이)명자 | 18일 | 크리스티안 | 이성원               |
| 11일 | 요한    | 김태윤    | 19일 | 요셉    | 김민옥<br>이현묵<br>박지민 |
| 9일  | 프란치스카 | 이정은    |     |       |                   |

##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14일 | 마틸다 | 이정진(H) | 19일 | 요셉 | 이재홍(O) |
|-----|-----|--------|-----|----|--------|

## ❖ 3월 성가번호 ❖

|         |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
| 3일      | 119 | 515 | 183 | 280 |
| 10일     | 125 | 226 | 198 | 121 |
| 17일     | 489 | 517 | 499 | 281 |
| 24일(성지) | 124 | 213 | 502 | 123 |
| 30일(성야) | -   | 130 | 136 | 134 |
| 31일     | 130 | 210 | 138 | 136 |

## ❖ 3월 전례 봉사 ❖

|     | 독 서                       | 제 병 봉 헌                 | 해 설 자         | 복 사                              | 커피 봉사      |
|-----|---------------------------|-------------------------|---------------|----------------------------------|------------|
| 3일  | 허채열(크리스티안)<br>허영란(엘리사벳)   | 허길조(안드레아스)<br>허영자(가밀라)  | 황혜인<br>(울리아)  | 박요나(요나)<br>이동윤(엘리아스)             | 2구역        |
| 10일 | 요셉마리아회                    |                         | 황혜인<br>(울리아)  | 박노아(노아)<br>이동빈(루카스)              | 3구역        |
| 17일 | 비르지타회                     | 김점선(실비아)<br>육종인(베로니카)   | 신유경<br>(울리아)  | 추이솔(빈첸시오)<br>이동빈(루카스)            | 4구역        |
| 24일 | 김진호(프란치스코)<br>최영숙(데레사)    | 김치수(도미니코)<br>이영희(클라우디아) | 박성아<br>(베로니카) | 추이솔(빈첸시오)<br>김종호(야고보)            | 요셉<br>마리아회 |
| 30일 | 해당 전례자                    | 사목회                     | 박성아<br>(베로니카) | 박노아, 박요나<br>추이솔, 김종호<br>이동빈, 이동윤 | 1구역        |
| 31일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김매자(베로니카) | 배성우(도미니코)<br>심은희(안 나)   | 최승진<br>(바오로)  | 박노아, 박요나<br>추이솔, 김종호<br>이동빈, 이동윤 | 2구역        |

## ♥ 2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 교구 계좌 입금(18)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욱, 백정선, 최화영, 이공중,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신유경, 손수희, 배성우, 김선애, 강일남, 김진호, 김민옥, 윤석순,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자진헌납금(6)

이정수, 최순남, 이종하, 이경란, 조영희, 이현묵

## ❁ 공동체 계좌 입금(8)

정정숙, 송문규, 이성원, 강신행, 영희 Eggerstedt, 이경규, 이호준, 박경원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21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17.836,35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 공동체 소식 ❖

❖ Hamburg 공동체 소식

1. 3월 22일은 사랑의 단식제 권고일입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절제한 뭇은 3월 24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때 봉헌합니다.
2. 3월 28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는 18시 15분 주교좌 돔 성당에서 합동으로 봉헌합니다.
3. 3월 29일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은 15시 예수성심 성당에서 합동으로 봉헌합니다. 예식 중에 예루살렘 성지보존 헌금이 있습니다.
4. 3월 30일 주님 부활 성야 미사는 20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합니다. 미사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형제, 자매님을 위해 축하와 기도를 바랍니다.
6. 3월 31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는 15시 예수성심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7. 3월 31일 일요일부터 Sommerzeit가 시작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지방공동체 소식

1. 3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2월 24일 브레멘

3월 2일 노르웨이(오슬로), 9일 오스나브뤼크, 16일 하노버

|                |                    |                                   |        |            |            |
|----------------|--------------------|-----------------------------------|--------|------------|------------|
| 사 목 협 의 회      |                    |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 예수성심성당 | 회장         | 한말조(마리안나)  |
|                |                    |                                   |        | 남부회장       | 허채열(크리스티안) |
|                |                    |                                   |        | 여부회장       | 신유경(올리아)   |
|                |                    |                                   |        | 전례부장       | 이순자(마리아)   |
|                |                    |                                   |        | 총무         | 박종래(바오로)   |
| 성 가 정 학 교      |                    | 매월 셋째 주일 14시                      | 예수성심성당 | 교감         | 최영자(파울라)   |
| 연 령 회          |                    | 매월 넷째 수요일<br>11시00분               | 만남성당   | 회장         | 최영숙(데레사)   |
| 예 비 자 교 리      |                    | 11월 - 3월<br>주일 13시30분 ~<br>14시30분 | 예수성심성당 | 복음화        | 회장 대리      |
| 레 지 오<br>마 리 애 | 믿음의 샘 Cu.          | 매월 둘째 화요일<br>19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김영희(클라우디아) |
|                | 자비의 모후 Pr.         | 매주 수요일<br>10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권지연(안드레아)  |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수요일<br>10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허명자(가밀라)   |
|                | 사랑의 모후 Pr.<br>(청년) | 매주 목요일<br>19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황혜인(올리아)   |
| 구 역            |                    | 1구역                               | 반장     | 최종금(로사)    |            |
|                |                    |                                   | 총무     | 김매자(베로니카)  |            |
|                |                    | 2구역                               | 반장     | 허길조(안드레아스) |            |
|                |                    |                                   | 총무     | 심선옥(도미니카)  |            |
|                |                    | 3구역                               | 반장     | 강순행(마르가리타) |            |
|                |                    |                                   | 총무     | 김원자(막달레나)  |            |
|                |                    | 4구역                               | 반장     | 권지연(안드레아)  |            |
|                |                    |                                   | 총무     | 이순자(마리아)   |            |
| 청년회            |                    |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br>만남성당              | 회장     |            |            |
|                |                    |                                   | 총무     |            |            |
| 비르지타회          |                    |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br>만남성당              | 회장     | 최승진(바오로)   |            |
|                |                    |                                   | 총무     | 황혜인(올리아)   |            |
| 요셉, 마리아회       |                    |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br>예수성심성당            | 회장     | 조현영(로사리아)  |            |
|                |                    |                                   | 총무     | 이정은(프란치스카) |            |

## 3 월 행 사 표

( 성 요 셉 성 월 )

2024년도

천주교 마산교구

| 일  | 요일 | 축 일                                 | 기관·단체 행사                   | 비 고                        |
|----|----|-------------------------------------|----------------------------|----------------------------|
| 1  | 금  |                                     |                            | 故김덕산(요셉) 신부 6주기<br>삼일절, 금욕 |
| 2  | 토  |                                     | 노르웨이(오슬로)                  |                            |
| 3  | 일  | 사순 제3주일                             | 15시 30분 미사 시작<br>구역반장 월례회  | 故석종관(바오로) 신부 50주기          |
| 4  | 월  |                                     |                            | 강영구, 최진우 신부                |
| 5  | 화  |                                     |                            | 故지대간(야고보) 신부 34주기<br>경칩    |
| 6  | 수  |                                     |                            | 故정수갈(요셉) 신부 46주기           |
| 7  | 목  |                                     |                            | 故서원열(리피엘) 신부 25주기          |
| 8  | 금  |                                     | 2구역 소공동체 모임                | 금욕                         |
| 9  | 토  |                                     | 오스나브뤼크                     |                            |
| 10 | 일  | 사순 제4주일                             | 비르지타회 월례회                  |                            |
| 11 | 월  |                                     |                            |                            |
| 12 | 화  |                                     | 꾸리아                        |                            |
| 13 | 수  |                                     |                            | 故김용백(요한) 신부 8주기            |
| 14 | 목  |                                     |                            |                            |
| 15 | 금  |                                     |                            | 금욕                         |
| 16 | 토  |                                     | 하노버                        |                            |
| 17 | 일  | 사순 제5주일                             | 성가정 학교<br>요셉마리아회 · 청년회 월례회 |                            |
| 18 | 월  |                                     |                            | 박해준 신부                     |
| 19 | 화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                            | 비고란 참조<br>故김치규(필립보) 신부 4주기 |
| 20 | 수  |                                     |                            | 춘분                         |
| 21 | 목  |                                     |                            |                            |
| 22 | 금  |                                     |                            | 금욕                         |
| 23 | 토  |                                     |                            |                            |
| 24 | 일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사목회                        |                            |
| 25 | 월  |                                     |                            | 김종훈 신부                     |
| 26 | 화  |                                     |                            |                            |
| 27 | 수  |                                     | 연령회 월례회                    |                            |
| 28 | 목  | 주님 만찬 성목요일                          | 주교좌 돔성당 / 18시 15분          |                            |
| 29 | 금  | 주님 수난 성금요일                          | 예수성심 성당 / 15시              | 금욕과 단식                     |
| 30 | 토  | 파스카 성야                              | 만남성당 강당 / 20시              |                            |
| 31 | 일  | 주님 부활 대축일<br>순교자 신석복 마르코 치명일(1866년) | 예수성심 성당 / 15시              |                            |

● 3월 19일 : 이한기, 권창현, 이성렬, 곽준석, 황인균, 신호열, 김형렬, 변종원, 정병진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 Jaehyuk Andreas Lee )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공동체 주임신부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 미 사 안 내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2. Etage)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 장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0 4109780

####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30분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Antonius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